

# EU 단일항공시장 형성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 - EU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 관점에서 -

A Political Economy of the Creation of a European Single Aviation Market : From the Viewpoint of the EU's Strategic Response against the US

서정욱(외교통상부, 국제에너지물류과 외무관, jwsuh96@mofat.go.kr)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적 항공운송협력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지역적 단위에서의 항공자유화를 통해 역내 항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외 교섭력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에서 최근 10여년간 세계 항공시장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이다. 지역블록의 형성과 이의 심화·발전 및 지역통합이 특정분야를 경제적·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경제 지리학의 중요한 관심분야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EU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EU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EU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EU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EU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EU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EU측의 협상 테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항공부문의 지역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항공산업의 발전 및 역외교섭력 제고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